

행복한 금요 편지

행복한 3일간의 여정

민지영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홍보연구원

휴가 시즌이다. 누구랑 같이 갈까 고민하면서 휴가계획을 짜다가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났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이 컸지만 나는 지금까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불연 듯 이번 여름휴가는 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내 일정을 고려해서 휴가 계획을 짜다보니 아빠는 시간내기가 여의치 않다. 아빠는 엄마하고 단 둘이 다녀오라고 하신다. 엄마도 좋다고 해서 모녀가 떠나기로 했다. 3박4일의 짧은 여정이다.

베트남으로 행선지를 정했다. 나는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내가 아는 것은 점심 때 가끔 먹었던 '쌀국수'가 전부였다. 엄마는 베트남을 '월남'이라고 하신다. 엄마 세대에서는 베트남보다 월남이라는 단어가 낯익은가보다.

비행기 안에서 둘만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어느덧 하노이 공항에 도착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첫 끼니로 무척이나 짭짤한 쌀국수를 점심으로 먹었다. 서울에서 즐기던 베트남 국수와 맛이 다르다. 우리는 호치민 묘가 있는 바딘광장으로 이동했다.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을 국부로 숭배하며, 존경하고 있음을 느꼈다. 호치민 시는 무척이나 더웠다. 40도 가까운 온도에 엄청난 습도 그리고 뜨거운 햇살이 호치민 광장을 내리 쫓는다. 그늘 하나 없다. 이곳을 엄마와 함께 걷고 있다. 첫날부터 돈 주고 하는 여행은 고생이 되어버렸다. 엄마도 처음 경험하시나 보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뜨거운 날씨는 처음'이라고 한다.

이번 여행의 첫날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다. 이튿날 아침은 베트남 최대의 절경으로 알려진 3천여 개의 섬들로 이루어진 하롱베이에서 맞이했다. 이곳은 바다임에도 불



구하고 호수같이 잔잔했다.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스피드보트로 갈아타며 섬 구석구석 아름다운 절경을 관광했다. 섬 안쪽에 원숭이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실제로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 안내원도 이렇게 많은 원숭이를 본적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어미원숭이 배에 새끼원숭이가 꼭 매달려있는 모습이 재미있는 볼거리였다. 하롱베이를 관광하고 나니 왜 유명한지를 알 것 같다. 이후 선상에서 해산물을 곁들인 음식도 먹고 엄마와 함께 베트남 마사지를 받았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기분이 좋다. 하롱베이에서의 둘째 날은 힐링의 하루였다.

마지막 일정은 하노이 시내투어였다. 스트리트카를 타고 낮에는 구시가지, 저녁에는 호안끼엠 호수 주변을 둘러보았다. 구시가지는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흡사했다. 엄마는 어린 시절인 1970~80년대 시장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고 즐거워한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 시장은 항상 역동적이다. 힘이 없는 사람이 가면 힘을 얻고 좌절한 사람이 가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나는 시장을 좋아 한다. 하노이의 이색적인 모습은 자동차보다 오토바이가 많다. 남녀노소 그리고 온가족이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허나 매연냄새가 나의 코 끝을 때렸다. 호안끼엠 호수의 밤거리는 연인들로 가득했다. 의자마다 연인들이 앉아서 사랑을 나눈다.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트리트카는 차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앉게 된다. 그래서 신호에 차가 멈춰서기라도 하면 뒤차 운전자와 눈이 계속 마주치게 되어 처음에는 너무나 민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면서 눈빛 교환과 손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마지막 밤이 깊어갔다.

서울에 돌아오니 폭염이 지속되고 있었다. 2016년 8월, 서울 평균기온이 109년 만에 최고인 기록적 폭염이 이어지고 있었다. 베트남 여행 첫날 뜨거운 하루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 폭염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폭염이 지속된다고 보도하지만, 서울에서의 폭염은 베트남에서 만났던 불볕더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버틸 만해서 하루하루 감사할 수 있었다.

엄마와 함께 행복했던 3일간의 베트남 여행이다. 그동안 나를 이토록 키워주신 부모님을 오래 오래 기억하며 나의 보호자이었던 부모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엄마와 함께 한 베트남 여행, 정말 즐거웠고 행복했다. 엄마와 함께 한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다음에는 아빠도 같이 가요. 다음에는 더 좋은 여행지로 모실게요. 사랑해요. 아빠! 엄마!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